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는 학교중퇴에 크게 혹은 작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경험을 학교 안팎에서 겪게된다. 한국사회에서와 같은 학벌사회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학교중퇴로 인해 본인에게 닥쳐올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되므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학교에서 졸업만큼은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버티고 있으려고 하며, 그 부모도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중퇴는 본인의 인내와 가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중퇴는 한두 가지 요인들이 단기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반복되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교중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구자경 외 2001, 박창남 외 2001, 서우석 외 2001, 조영승 외 2001).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단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각 범주별로 병렬적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순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중퇴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최근에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청소년 일탈이론을 바탕으로 학교중퇴에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한국사회에서 학교중퇴의 경로모델(path model)을 가설적으로나마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러한 경로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학교중퇴 경로모델은 학교중퇴의 원인을 밝히려는 후속 연구에 의하여 경험적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퇴의 경로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중퇴율을 나타내며, 최근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고, 또한 학교중퇴의 원인들이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장차 학교중퇴의 원인론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학교중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학교중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경로모델(path model)을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구성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중퇴청소년의 중퇴원인과 과정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통제

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학교중퇴 현상에 적용시켜 보았다.

두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탐색적으로 구성된 경로모델(path model)에 따라 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중퇴의 원인을 학교부적응의 진행시기에 따라서 관습적 유대감의 상실, 진로실패, 이탈적 사회화와 같이 세가지 단계로 나눈 뒤, 각 단계별 세부원인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중퇴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2. 학교중퇴의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3.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
4. 학교중퇴의 원인론 구성을 위한 탐색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모델을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교중퇴청소년의 중퇴원인과 과정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검토하였고 학교중퇴의 경로모델(path model)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탈을 설명하는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교중퇴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로모델(path model)을 구성하였다.

1. 학교중퇴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었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유성경 외(1998)는 학교중퇴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측면과 학교 및 지역사회체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그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하위범주로 가정배경, 학교에서의 행동·태도, 학교 밖에서의 행동, 개인의 심리·가치로 설정한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하위범주별로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가정배경 범주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결손,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낮은 기대 등이 속하며, 학교에서의 행동·태도 범주에는 성적부진, 지식이나 결석, 징계경험, 학교에의 낮은 소속감, 교우관계에서의 따돌림이나 폭력경험,

교사와의 낮은 유대감 등이 포함된다. 학교 밖에서의 행동 범주에는 중퇴친구들과의 접촉, 아르바이트 경험, 비행이나 범죄경험 등이 속하며, 개인의 심리·가치 범주에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통제력, 가부장적 여성관, 물질적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표 2-1> 개인적 측면 - 가정배경

하위요인	관련 내용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가정의 살림을 도와야 한다
가족구조	편부, 편모, 계부, 계모를 가졌거나 부모가 별거중이다
가족기능	부모가 허용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 가족구성원이 약물문제나 폭력과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가정의 교육적 지원	가족의 교육열이 낮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다 부모 훈육의 부재, 잘못된 훈육

<표 2-2> 개인적 측면 -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하위요인	관련 내용
학업	성적이 부진하다 진학에 대한 기대가 낮다 숙제를 잘 안해온다
학칙위반	수업을 빼먹거나 지각, 결석 등의 행동을 한다 근신/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생활에의 참여	학교가 싫다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학교가 지루하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
교우관계	학교에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학교폭력의 희생자이다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표 2-3> 개인적 측면 - 학교 밖에서의 행동

하위요인	관련 내용
친구교제	중퇴를 한 친구들과 어울린다
일	긴 시간을 투자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직업을 가졌다 일하는 것이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중요하게 느껴진다)
활동 및 사건	소년법정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한다 약물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신다 임신을 했다 결혼을 했다

<표 2-4> 개인적 측면 - 개인의 심리 및 가치

하위요인	관련 내용
자존감	자존감이 낮다
통제감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	여성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관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나라)을 떠나고 싶어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체계 측면에서의 하위범주로는 학교체계와 지역사회체계를 설정하여, 학교체계 범주에는 많은 빈곤학생, 엄격한 교칙운영,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부재 등이 속하며, 지역사회체계 범주에는 유흥·향락문화의 팽배, 부정적 또래집단의 존재, 효과적 지원집단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표 2-5> 학교 및 지역사회체계 측면 - 학교체계

하위요인	관련 내용
학교의 구조적 특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학교에 학생수가 많다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있다
교칙운영 과정	엄격하게 교칙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시한다 경직된 교과운영을 한다
학교조직과 분위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학생의 개인사정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가 없다

<표 2-6> 학교 및 지역사회체계 측면 - 지역사회체계

하위요인	관련 내용
사회의 분위기	유흥 및 향락문화가 팽배해 있다
동년배집단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가속시키는 부정적인 또래집단이 존재한다
지역사회내 지원프로그램	상담기관, 복지관, 교회, 자원봉사집단 등 효과적인 지원집단이 부족하다

Dupper(1993)는 중퇴 요인을 크게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등의 네가지로 나누고 있다.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의 부족, 처벌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인식, 반복되는 무단결석,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등의 학교처벌, 부정적인 학교경험 등이 중퇴자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가난이 중퇴하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중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교육적인 목표가 매우 낮은 경우 중퇴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낮은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 등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정지인, 1997)

이혜영(2001)은 학교중퇴의 요인을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과 같은 네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는 학교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는 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욕 부족, 학교부적응을 들고 있으며, 가정요인으로는 결손가정의 증가, 경제적 빈곤, 부모의 관심과 교육적 지원부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 학교운영, 구성원간 친밀감 부족, 입시 및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요인으로는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정보화 등 사회변화로 인한 학교기능의 약화를 들고 있다.

김민(2001)은 전통적 학교중퇴의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또래집단 요인, 학교교육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개인적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강한 공격성, 건강상의 문제, 학습장애, 학교 외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들고 있으며, 가정적 요인으로 가족의 구조적 결손, 낮은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불화와 무관심을 들고 있다. 그리고 또래집단 요인으로는 또래집단에서의 거부와 소외경험, 비행소년과의 유대감을 들고 있으며, 학교교육 요인으로는 낮은 학업성취능력, 학교에서의 소외와 거부경험, 학교에 대한 무관심, 문제행동, 경직된 학교교육을 들고 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향락적 유해환경을 들고 있다.

윤여각 외(2002)는 학교중퇴의 이유를 몇가지 유형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와의 불화, 부모의 학대 등

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출하여 중퇴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족이 너무 빈곤하여 생계문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왕따, 교사로부터의 차별적 대우, 획일적 교육 등과 같은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퇴유형이다. 네 번째는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다섯 번째는 비행에 흥미를 느끼고 징계와 처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여섯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며, 일곱 번째는 이민, 조기유학과 같은 다른 나라에 장기간의 외유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는 유형이다.

박창남 외(2001)는 학교중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과 교육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한 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학벌주의, 사회의 계층구조화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설득력 상실, 전통적 가족형태의 해체를 들고 있으며, 교육제도적 요인으로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인력수급의 불일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를 들고 있다. 그는 또한 중퇴의 원인을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생, 실업고생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중퇴는 주로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결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의 실직, 빈곤, 맞벌이, 이혼 등에 따른 열악한 가족환경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쏟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부모의 아동학대 및 폭력은 청소년 초기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공격성, 분노, 부정적 자아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족에게서 배운 이러한 행동을 주변 친구들에게 표출하여 문제아로 낙인찍힌다.

중학생 시기의 중퇴의 원인에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다. 요즈음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반

항과 방향'을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는 연령대가 성별과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대체로 중학교 2-3학년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동안 청소년기 특유의 어른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며, 질풍노도와 같은 걱정과 방황시기를 경험한다. 초등학생 시절의 가족의 결손이 존재하여 왔으나, 비교적 잘 버틴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불화와 결손에 대해 초등학생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좌절과 분노를 느끼며, 가출을 동반하여 중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입진학을 위한 준비이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좌절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비인간화된 학교와 성적에 의한 인간적 차별이 존재하는 교실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 원인은 개인적 측면보다도 오히려 제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1960-70년대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교육이 한국사회의 고학력화경향에 따라 점차 소외되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쫓지 못한 채, 제3국으로 공장이전을 하고 있는 3D 업종이나 비정규직에 어울리는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사실상 국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의 위상과 목표에 있어서 위기이며, 국가의 기술인력양성체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중퇴에 관한 경험적 조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중퇴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결과를 구자경 외(2001), 서우석 외(2001), 이정립(1999), 박창남 외(2001)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자경 외(2001)는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1,198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중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모든 교급에서 자퇴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교칙’, ‘학습부진’이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반계고에서는 내신성적의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려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자퇴를 하고 싶은 이유 (구자경 외, 2001)

평균 순위	자퇴를 하고 싶은 이유	중학교 순위	일반고 순위	실업고 순위
1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	1	1
2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2	4	2
3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3	3	4
4	내신성적이 나빠서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다	7	2	8
5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다	4	5	5
6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재미있다	5	7	3
7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빴다	6	8	6

경기도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교 복교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우석(2001)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복교를 경험한 학생들이 제시한 중퇴의 원인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냥 집을 떠나고 싶다’는 가족결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교체제 측면에서는

‘학교 자체가 싫다’와 ‘학습부진’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친구가 중퇴한 경우’가 가장 많고,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되어 중퇴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표2-8> 학교를 중퇴한 이유 (서우석 외, 2001)

영역	순위	원인
개인적 측면	1	그냥 집을 떠나고 싶다
	2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4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5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하다
	6	돈을 벌고 싶다
학교 체제 측면	1	학교 자체가 싫다
	2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3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
	4	학교를 다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	학교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
	6	비행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학교측의 권고가 있었다
사회적 측면	1	나와 어울리는 친구가 학교를 그만 두었다
	2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3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되었다
	4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
	5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이 학교다니는 것보다 좋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하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생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경림(1999)은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퇴한 가장 큰 원인은 ‘학교공부가 싫어서

(44.2%)’이며, 다음으로 ‘집을 떠나고 싶어서(18.6%)’, ‘사회진출을 위해서(7.0%)’,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5.8%)’,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4.7%)’, ‘비행이나 사고로 인한 학교로부터의 권고가 있어서(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이 48%, 가정의 문제가 24%로 나타났으며, 보다 나은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경우도 5% 정도 되었다.

<표 2-9> 학교를 중퇴한 이유 (이경립, 1999)

순위	원인	백분율
1	학교 공부가 싫어서	44.2%
2	집을 떠나고 싶어서(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다)	18.6%
3	기타	16.3%
4	사회진출(취업)을 위해서	7.0%
5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5.8%
6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대학)에 가려고	4.7%
7	비행이나 사고로 인한 학교로부터의 권고가 있어서	3.5%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 재학생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박창남 외(2001)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0>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박창남 외, 2001)

순위	원인	비율(%)
1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5.1
2	능력과 적성 무시	13.8
3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13.5
3	학교 교칙이 엄격해서	13.5
5	시험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	13.1
6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몰라서	11.5
7	성적에 따른 차별	5.0
8	문제아로 찍혀서	3.7
9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3.0
10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3
11	가족관계가 불안해서	2.1
12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1.8
13	따돌림을 당해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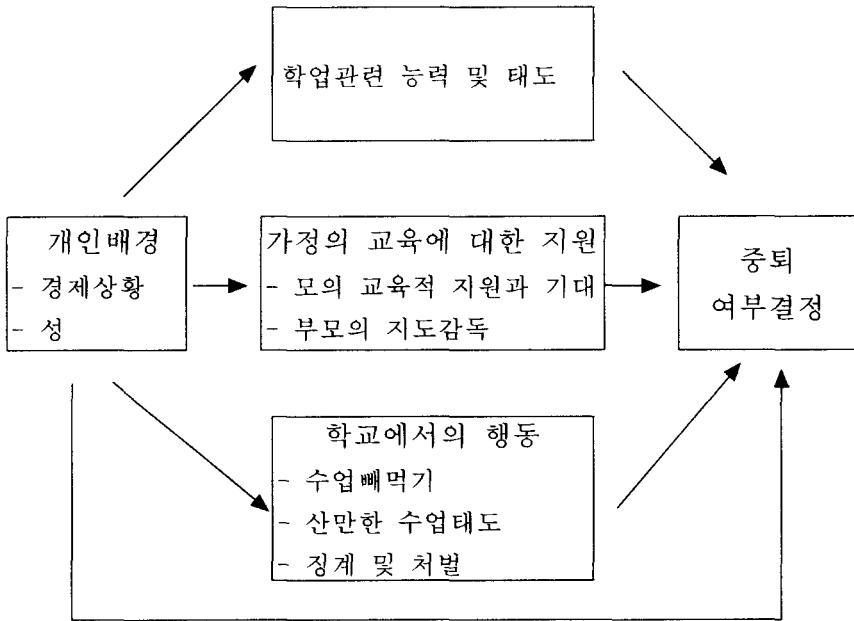
중퇴 실행가능단계에 있는 중·고 재학생의 중퇴 이유로는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능력과 적성이 무시되어서’,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학교교칙이 엄격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중퇴가 가정형편이나 성적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등과 같은 전통적 요인에서 비롯되기보다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자신의 진로, 적성, 인생목표와 가치 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문제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중퇴에 관한 이론 및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중퇴의 원인들을 크게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범주로 나눈 뒤, 각 범주별로 세부원인들을 병렬적으로 혹은 순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각 범주와 세부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범주와 범주간에, 원인과 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학교중퇴의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중퇴의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Ekstrom의 중퇴 경로모델, 이숙영의 6단계 중퇴 과정, 허철수의 3단계 중퇴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Ekstrom 외(1986)는 학생의 개인배경,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교성적과 태도,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중퇴 여부를 결정하는 경로모델을 발전시켰다. 아래 그림에서는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유성경 외, 1998)



[그림 2-1] Ekstrom의 중퇴 경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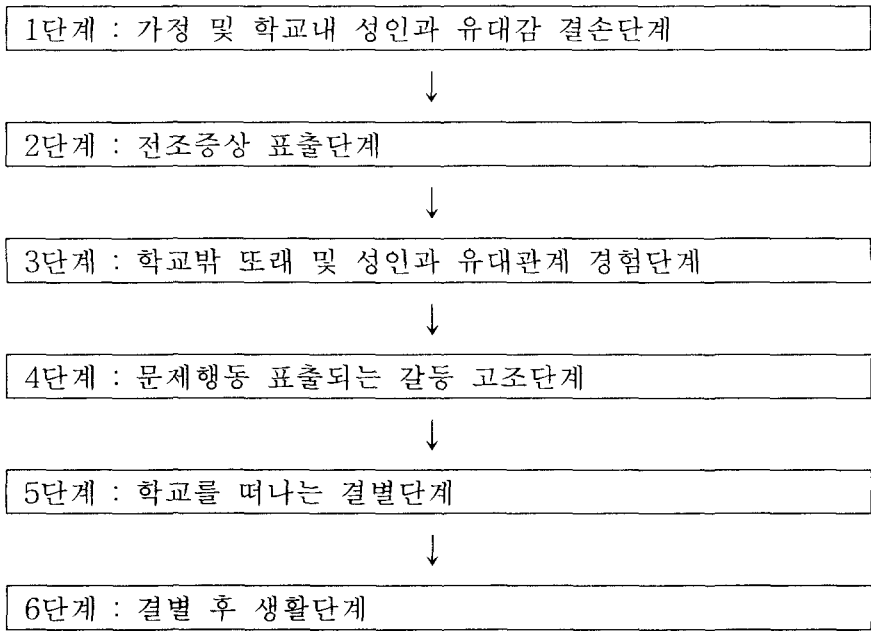
자료: Ekstrom, R. B., Goertz, M. E., Follack, J. M., &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각 개별 요인들과 중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우선 중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으로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지역, 성별 등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가족구조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구조를 가진 청소년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면에서는 높은 경우의 학생이 중퇴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인종면에서는 학업성적을 통제했을 경우 백인학생과 히스패닉학생이 흑인학생에 비해 중퇴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역면에서는 남부거주 학생이, 성별에서는 백인과 히스패닉의 경우는 남학생이, 흑인의 경우는 여학생이 중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가정의 교육적 지원에서는 가정의 교육

에 대한 지원이 다양할수록 중퇴를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셋째, 학교에서의 학업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면에서 중퇴와 관련된 변인은 학교성적과 수학점수, 통제의 소재 등의 변인이었다. 성적이 낮은 것과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것, 통제의 소재를 외부에 두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 중퇴와 관련이 있었다. 넷째, 학교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수업을 빼먹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또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 중퇴를 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네가지의 영역에서의 개별요인들 중 청소년의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요인은 행동상의 문제와 성적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을 빼먹거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와 부진한 성적이 중퇴의 결정 요인이 되며, 이러한 행동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학교에서의 행동상의 문제는 남성일 경우와 언어력이 떨어질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기대가 낮은 경우,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또한 성적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는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문제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기대, 부모와 교육에 관련와 같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이숙영 외(1997)는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 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유성경 외, 1998)



[그림 2-2] 이숙영 외(1997)의 중퇴 6단계 과정

중퇴청소년들이 보이는 외현적 행동이 위의 여섯 단계를 명백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의 이면에 위의 중퇴의 여섯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여짐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여섯 단계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가정 및 학교내 성인, 즉 교사와의 유대감의 결손이 나타나는 단계로 성인들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항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며, 2단계는 1단계에서 내면화되었던 것들이 지각이나 수업태만과 같은 형태로 표면화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정이나 학교 밖의 또래 혹은 성인들과의 유대관계에서 경험하면서 또래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나름대로 학교 밖에서 재미와

자신감을 얻어가는 단계이다. 4단계는 갈등이 고조되어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단계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가정이나 학교는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통제,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게 된다. 5단계는 4단계에서 고조된 갈등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결별단계이다. 비행으로 인한 명퇴이든,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자퇴이든 청소년들은 학교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학교 역시 학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결별 후의 생활단계이다. 중퇴 이후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긴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비행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허철수(1998)는 중퇴의 일반적인 촉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 → 애정 결핍 → 가정에서의 소외 → 학교에서 부적응 → 자존심 손상, 열등의식 → 불량청소년과의 접촉 → 가출 및 장기결석 → 중퇴라는 과정을 거쳐서 중퇴에 이르게 되며, 이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초기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청소년이 소속된 생활장면에서 중퇴의 도화선이 되는 외적인 자극들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때 가치관 혼란과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표정이나 행동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초기단계는 중퇴의 전조라는 입장에서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중기단계는 청소년이 소외감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방황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때 초기단계의 심리적 방황이나 갈등을 외부로 발산하기 시작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를 찾고자 한다. 이때 바로 중퇴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이나 학교 등 기존집단에 대항하여 중퇴 성향을 높이는 행위로 변화하는 단계로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중퇴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고 한다.(유성경 외, 1998)

3.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

1) 사회통제론

사회통제론(social control theory)은 규범위반이 일반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이로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통제론은 일탈동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탈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또 규범을 위반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사회통제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탈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또는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회통제론인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론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그는 일반적인 혹은 지배적인 규범체계를 가정하고 규범위반은 관습적 사회와의 결속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 결속은 신념(belief),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관여(involvement)의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Liska, 1986)

신념은 관습적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허쉬는 사람들이 관습적 규범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이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애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지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받는 존경과 지위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인 사회적 통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쉬는 사람들이 사회에 집착하면 할수록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전념은 규범준수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허쉬는 규범위반자로 사회에 알려져 손해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사회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관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관습적 활동을 위해 보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관습적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일탈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허쉬는 사회적 관여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Liska, 1986)

2)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집단들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규범위반을 불러온다고 보면서, 부분집단의 문화가 세대를 거쳐 학습·사회화되는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회학습이론인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교제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다루기로 한다. 서덜랜드의 차별교제론은 일탈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은 9개의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Liska, 1986)

- ① ‘일탈행동은 학습된다’ : 일탈행동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심리적 특성의 결

과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일탈행동은 학습되는 것이다.

② ‘일탈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③ ‘일탈행동 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집단내에서 일어난다’

④ ‘일탈행동이 학습될 때 그 내용은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혹은 매우 간단한 일탈행동에 필요한 기술과 일탈행위에 유리한 동기, 충동, 합리화 및 태도를 포함한다’

⑤ ‘동기와 충동의 구체적 방향은 법 규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의로부터 학습된다’ : 사람들이 부, 사회적 성공 등에 대해 일반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양식은 일탈행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의와의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⑥ ‘어떤 사람이 일탈자가 되는 것은 법위반에 대한 긍정적 정의가 부정적 정의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⑦ ‘차별교제는 빈도, 기간, 우선성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빈도는 어떤 사람이 접촉한 일탈적 정의와 비일탈적 정의의 수를 말하며, 기간은 그러한 정의와 접촉한 기간의 정도를 말한다. 우선성은 그러한 정의에 처음으로 접촉했던 나이를 말하며, 강도는 일탈적 정의 그리고 비일탈적 정의와의 접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차별교제이론은 일탈적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및 강도가 비일탈적 교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일탈적 행동을 할 확률이 관습적 행동을 할 확률에 비해 높다고 가정한다.

⑧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일탈을 배우는 과정은 다른 모든 행위의 학습과정과 같다’ : 일탈자와 비일탈자간의차이는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이다

⑨ ‘일탈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물질적 풍요 혹은 사회적 위세)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으로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일탈적 행동도 동일한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 어떤 사람들은 비일탈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탈행동을 함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킨다

서덜랜드는 일탈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일탈행동에 대한 긍정적 정의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차별교제이론이 일탈은 단지 일탈적 정의(deviant definition)와 접촉한 결과라고 보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일탈적 정의와 어느 정도는 접촉하고 있다. 즉 비일탈적 정의에 대한 일탈적 정의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다.

4. 학교중퇴의 원인론 구성을 위한 탐색

1) 학교중퇴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함의

학교중퇴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중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공부’에 있다. 여기서 ‘학교공부가 싫다’의 의미를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학교공부가 싫다는 것은 첫째로는 학교공부와의 희망사이의 격차가 있어 싫다는 의미이고, 둘째로는 나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밖에서 재미있게 놀고만 싶어서’ 공부가 싫다는 의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자의 응답자와 후자의 응답자의 비율로 따지면 후자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현재 어떤 것을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학교중퇴 이전에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다. 주변에서 누구도 그것에 관하여 자극을 주지 않았으며, 본인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처온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로부터의 낮은 교육적 지원과 관심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으며, 재학시절 어느 정도의 비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학생 시기부터 학교안보다는 학교밖에 훨씬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며, 누적된다.

한국사회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더불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가족결손, 중학생 시기에 반복되었던 ‘학교 밖 놀기’의 생활과 진로의식의 미성숙 상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학교중퇴에의 적용

청소년일탈을 설명하는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계속 되어왔다. 이러한 시도들의 대부분은 사회통제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관습적 사회와의 유대감 상실을 설명하며, 사회학습이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시간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와의 유대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비행친구나 비행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일탈의 기술과 정의(definition)를 학습하므로 사

회통제론의 변수들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사회학습이론의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이론적 통합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중퇴의 과정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통제론을 학교중퇴에 적용시킬 경우에 기존의 신념, 애착, 전념, 관여 변인들 중에서 신념 변인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탈이나 비행과는 달리 학교중퇴현상에 ‘도덕적’인 가치를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학습이론의 경우에 학교중퇴에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은 비행친구와의 교제이다. 비행친구와의 교제속에서 ‘학교밖 놀기’의 문화에 빠져들고, 또한 비행친구와 학교중퇴친구는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3) 경로모델(path model)의 구성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의 경로모델을 위에서 제시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되,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시기를 나누어 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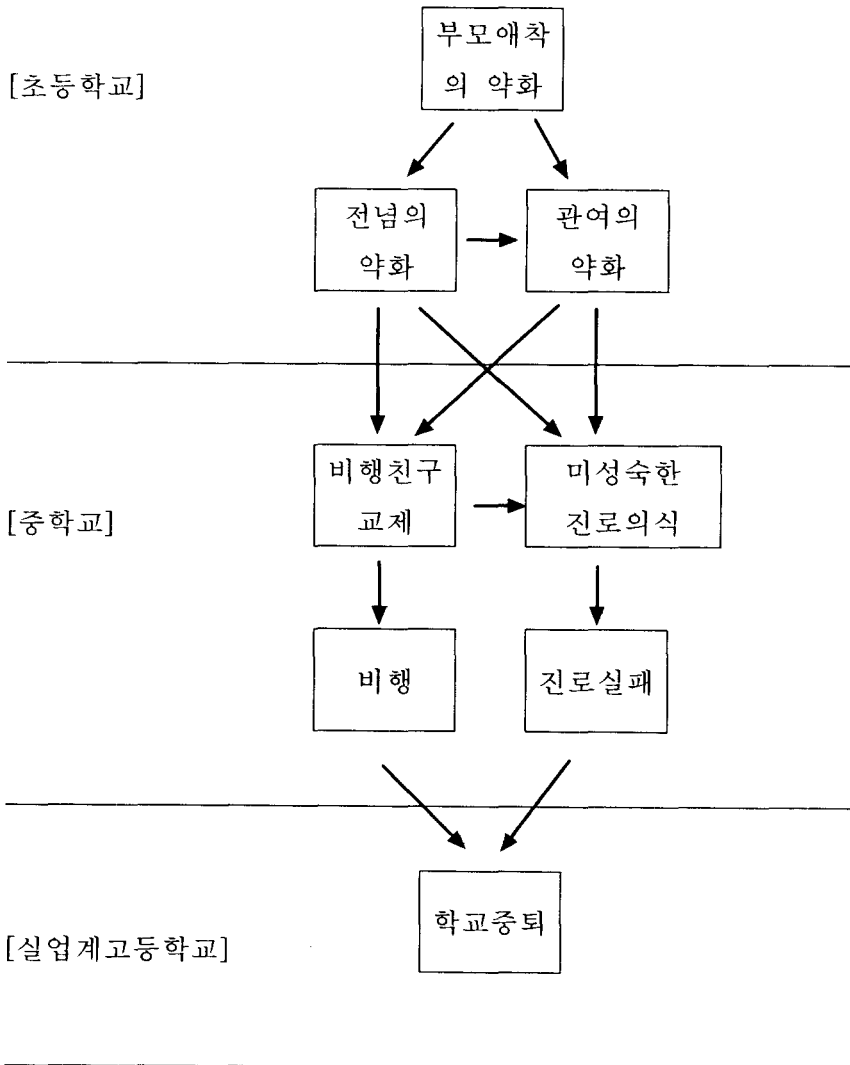
초등학생 시기에는 가족내에서의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내지는 상실 발생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감이 낮아지고, 학교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화되며, 학교교육에 대한 시간의 투여량도 줄어들게 된다.

중학생 시기에는 관습적 유대감의 상실로 인해 비관습적 또래 문화에 접하게 되며, 일탈행위의 기술과 동기를 학습하게 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탈행위는 누적되어 점차 경비행에서 중비행으로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 또한 전념과 관여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성적이 낮아지며, 진로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을 정해야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중학생 시기에 누적되었던 ‘학교 밖 놀기’의 태도와 습관은 정상적인 학습과정과 학교적응에 장애가 되고, 학습부진을 낳는다. 그리고 진로의식의 미성숙에 따른 비관심분야 전공선택은 흥미부족을 가져와 학습부진을 가중시키며, 결국 학교중퇴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의 중퇴경로모델을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2-3]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중퇴의 경로모델

Ⅲ. 연구방법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인원은 4명이며 모두 남자이다.

조사대상자의 성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성격

	연령	성별	중퇴 경력	최초 중퇴시기	최종 중퇴시기
A군	19세	남	2회	고1 (2000년)	고2 (2001년)
B군	20세	남	2회	고1 (1999년)	고1 (1999년)
C군	19세	남	2회	고1 (2000년)	고2 (2001년)
D군	19세	남	1회	고1 (2000년)	-

◇ A군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2남중 장남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모두 중졸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서 방앗간을 하였으나, 지금은 농산물시장에서 밀가루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방앗간 일을 도왔으나, 지금은 식당일을 하시는데,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야 들어온다. 아버지가 일을 하는 중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를 좋아했으나 학교중퇴이후에 사이가 나빠진 상태이다.

중학교 2학년부터 약 1년 동안 학교내 아마추어 레슬링부에서 운동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레슬링부 친구들이 자꾸 운동

을 그만두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본인도 그만두게 되었다. 계속되어온 운동생활을 그만두면서 교실내의 학습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의 친구들과의 놀이에 열중하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부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서 중간정도였던 학교성적이 점점 더 떨어졌고, 가출도 여러번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여러번 맞기도 하였다.

S공고에 진학한 후에도 친구들과 밤늦게 까지 놀다가 자주 결석을 한 끝에 결석일수가 80일을 넘기게 되어 자퇴하였다. 그 후 D공고로 전학하였으나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였다.

현재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검정고시를 볼 계획을 갖고 있다.

◇ B군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1남 1녀중 첫째이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초졸이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중퇴이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과일소매상을 하였으나 지금은 농산물시장에서 과일도매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아버지로부터는 중학교때부터 가끔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술을 심하게 드시고 집안 살림을 부수었고, 자주 어머니와 싸웠던 것으로 기억하며, 경제적 수준은 중간이하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현재 태권도 4단이다. 중학교 시절에는 태권도 도장을 차려 관장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중학교때까지는 성적이 중위권이었으며 결석도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진학시에 체육을 계속할 수 있는 P고에 진학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H공고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합

격자 발표일에야 야간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입학 후 부터 동네 친구, 학교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잦은 결석이 시작되었다.

30일 결석이후에 학교에서 제적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다시 복학을 결심하고 K공고로 전학하였으나 그 동안의 밤과 낮이 바뀐 생활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자퇴하였다.

중퇴 후 그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지금은 관심이 있는 마술을 배우고 있다.

◇ C군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1남 1녀중 첫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모두 중졸이며, 아버지는 동네에서 조그만 식료품점을 하시며, 어머니는 집에 계신다. 아버지와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만, 어머니와는 대화도 많고 잘 이해해주신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가 재미있고 잘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태권도를 배워 현재 태권도 3단이다. 집에서 아버지 보기 싫어서 중3때 가출하였는데, 친구 자취방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PC방,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가출 후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았고, 번 돈으로는 옷이나 신발을 사고, 사먹기도 하였다.

중학교 졸업하고 S공고 디자인과에 입학하였는데, 전공은 친구들과 모두 같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함께 결정하였다. 고등학교 입학하고는 공부하기 싫고, 친구끼리 놀고 싶어서 많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80일 가까이 결석하여 제적처리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다보니 오히려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던 적도 있다. 그 후 D공고 전자과로 전학 하였으나 역시 친구관계를 끊지 못하여 결석의 누적으로 자퇴하였다.

앞으로 검정고시를 볼 생각이며, 친척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 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 D군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4학년때 서울로 이사왔다. 부모님이 모두 계시며, 1남 3녀중 막내이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며,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셨다. 커오면서 아버지로부터의 구타를 가끔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편이며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다. 중학교 1학년때까지는 집과 학원, 오락실, 교회에만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들어 비행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술과 담배도 배우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때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맞았는데, 같은 반 친구가 대신 보복으로 때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다. 남자친구들간의 의리를 무척 중요시 하며,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하여 여자친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친구들과 자주 밤에 몰려다녔으며, 오토바이 절도, 패싸움도 하였다.

낮은 성적으로 인하여 K공고에 입학한 후 친구들간의 노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학교에 자주 결석하게 되었고, 결국 자퇴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중3에서 고1까지의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고 싶었다고 한다. 올해 8월의 슈퍼마켓 절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다. 현재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검정고시를 볼 생각이며, 직업으로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IV. 연구결과

1.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
2. 비행친구 접촉과 비행
3. 미성숙한 진로의식과 진로실패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3장에서 제시되었던 실업계 중퇴청소년의 경로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 중학생 시절에 겪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의 진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진로실패라는 세가지의 단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4명의 조사대상자가 말했던 내용과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과과의 애착이다.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며, 어느 정도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학교성적이나 진로, 직업에 관한 관심과 의지이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잘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관한 것이다. 하루의 생활 중 얼마나 충실하게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임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A군

아빠가 요즘에 돈을 잘 못 가져와 가지고요, 빚이 많아서
은 싸움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때는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싸울 때는 얼마 집나가고 아버지는 또 찾으러가고 집에 거의 없었죠.

중학교 때부터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 데 장혀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맨날 맞고 그때는 제가 얼마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학교 다니다 안 다니다 막 했거든요, 그러다 얼마한테 걸렸어요. 얼마가 그런 니가 허드렛일이라도 다니면 학교 안 다녀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주요소일을 했거든요.

▶ B군

신진동 살때는 지금도 가쁜 기억나요. 집에 남아나는 가구가 없어요. 아버지가 술을 심하게 좋아하셔요. 힘들게 일하고 그러니까 술 매일 드시고....

아버지는 거기로 내려가시면서 일주일에 많아야 한 하루 이틀 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새벽3시에 경매하시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있다보니까 어머니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깊어지더라고요. 어머니하고는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췌공고 그만두었을 때 한 얼마동안은 아버지랑 얘기를 안했어요. 나중에 통지서가 날라와서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된거예요. 당시에 저는 학교 그만두고 나서도 교복입고 몇 일은 학교 왔다갔다하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은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싸대기를 때리셔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깨워보니까 문이 아파요. 아버지가 계속 발로 차고 있는거예요. 이거 한 대 맞고 기절했던거예요.

▶ C군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한번 나갔거든요. 한번 나가고 그때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아빠 얼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가고 나서는 밖에서 제 맘대로 할수 있고여, 한번 나가다보니까 계속 나가게 되가지구여...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여 딱 아빠가 저를 포기 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구요, 저도 이제 아빠한테 애교부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두 잘하고 싶은데...

▶ D군

아빠하고는 정말 멀었죠, 너무 멀었죠. 다가가기엔 너무 먼 당신. 엄마하고는 얘기하고, 요즘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 가셨거든요, 지금도 할머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집에 얼마 아빠가 일 나가셔가지고 친구들이랑 여 자애들이 와서 누워있었거든요. 그 때 아빠가 들어온거예요. 갇자기 아빠가 신발을 벗더니 구두 뒷굽으루 여강(여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두 명이 이렇게 생기고...

위에 제시된 4명의 중퇴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는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대체로 하층에 가까웠으며, 1명을 제외하고 맞벌이 가족이었다. 이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심이 적은 반면, 학교중퇴와 비행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용납하지 않았으

며, 때로는 아주 심각한 폭력을 청소년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이와 같은 관습적 유대감의 약화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춘기적 특성을 공유하는 또래집단에 눈길을 돌리게 만들며, 거기에서 자기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 한다.

2. 비행친구 접촉과 비행

실업계 중퇴청소년들은 주로 중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또래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친구간의 의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래친구들의 일탈적인 행위를 보고 따라하게 되며, 비행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모두 진전된다.

▶ A군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수업도 안하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들어 가니까요, 중학교 3학년 말 때 있잖아요, 그때가 그립네요, 그때가 좋았는데...영화보고 놀고, 놀다가 자고, 쌤방 가고, 그때가 좋았어요. 3학년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친구들을 딱 댕겨요, 그냥 가면 되는 데 길에서 애기를 하다보면 생각이 서로 맞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 싫다. 한 조금만 있다가... 그런 결석은 안되잖아요 그냥 지각만 하니까, 그렇게 계속 놀다가 이젠 오후 수업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놀 때는 그냥 동네 돌아 다니가다, 오각식하고 놀이터에도 앉아있고, 차비 없으면 집에 가고...

자꾸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딱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아!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젠 빠지지 말아야지 해도, 꼬시는 친구들도 있고, 생각 많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요...

▶ B군

중학교 올라가서는 저희 지역 애들이 많았지만 근처 마천동이나 그런데서 온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1학년때까지는 뭇모르고 다녔고 2학년때는 학교에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다른 지역 형들이나 친구들 만나고 했어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다른 지역 오면은 사고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중학교 3학년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고 학년이 되니까, 패싸움같은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는데 어디에 소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 애들이 있어서 친구자취방에서 자주 술을 먹어요. 그냥 여자 애들과 모여서 놀다가 노래방 갔다가 친구 자취방 가서 여자 애들이랑 술먹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하고 뭇갈아 입을 입 있으면 집에 왔다가 아침에 와서 여자애들이랑 놀다가 또 자요. 노는 데는 노래방, 당구장, PB방, 친구자취방, 오락실, 가꾼 돈 쥘 있으면 놀이동산 뭐 그정도죠, 당일 코스로요.

▶ C군

학교에서요,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 편은 아니구요,

제가 쏘 집중을 못했어, 그리고 학교 안다니는 친구들이 쏘 있으니까, 학교가면 반나절은 학교에 있잖아, 학교 갈 시간이 솔직히 아까워가지고...

중3때부터는 그냥 새친구들 만나서 그쪽에서 놀다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쏘 있어갔구, 학교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노는게 나은 것 같구... 그리고 그때는 얼마 아빠가 모두 직장에 다니셨거든요. 한 11시쯤되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 불러서 놀구 그랬어요.

중학교때부터는 알게 되잖아. 돈도 알게 되구, 여자애도 알게 되구, 밖의 생활 그런 것도 알게 되구, 술도 알게 되고...

▶ D군

어느 날 딱 학교 애들한테 제가 맞고 왔어, 다음날 학교에 가는 데 저희 반에 노는 애가 있었거든요, 얘기했죠, 락 얼굴 부어갔고 락 이대갔고 왜 그러냐고, 딱 학교 애들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저 보는 앞에서 락 때렸어, 어쨌든 마음에 전 그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중학교 2학년때부터 함께 놀았어, 저 힙한 일 같은 것이 있으면 개네들이 도와주고 그러죠... 친구들이 어디 나쁜 데(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도 우리가 도와주죠.

항머니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 타가지고 3일 동안 밤새구 그랬어. 개가 모텔에 알바를 나가야 되는데 3일동안 없다고 말하고, 같이 밤새웠어, 그래서 개한테도 고맙

어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는요, # 중학교와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치고 박고 싸웠죠, 그때는 가끔 다른 학교랑 싸우면 제가
문 빵(맨 앞에서 맞는 역할)을 했어요.

그냥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가끔씩 여자친구와 자기도 하
고요, 그때는 맨날 바뀌었어요, 여자랑 맨날 채팅 해가지고
맞나고 막 꼬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놓고 싶었어요, 진짜... 그때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4명의 중퇴청소년 모두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을 깊이 사귀었다.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노는 문화속에서
음주와 흡연을 배웠으며, 경우에 따라 가출, 패싸움, 성관계도 갖
게 되었다. 학교안에서의 성적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
들게 되고, 학교밖 사회에서 재미있게 놀기에 모든 정신이 집중
되어 있어 심지어 학교에서의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기도 한다.

대체로 친구들과 밤늦게 까지 돌아다니면서 놀기 때문에 아침
에 늦게 일어나고 지각이 늘어난다. 학교밖의 재미에 빠져있으므
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결석이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의 사춘기적 특성인 질풍노도, 혼란, 반항
등과 같은 특성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러한 특성
을 공유하는 또래집단간의 유대는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또래집단이 일탈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될 때, 심각
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비행에서 점차 중
비행으로 진전된다.

3. 미성숙한 진로의식과 진로실패

중학교 3학년에 이르면 고등학교를 일반계고를 지원할지, 실업계고를 지원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갈림길은 진학과 취업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며, 특히 실업계고를 지원할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선택은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성적에 따라서 일반계고와 실업계고가 나뉘어 지고 있다. 또한 실업계고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학교수준과 전공이 정해져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고 진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실업계고 중퇴청소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으며, 고등학교 진학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로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A군

중 1때는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아무 데나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제가 공부를 존 못했거든요. 동네 거기서 운동부가 있었어요 1학년 한 2학기 때부터 다니다가 3학년 초반에 그만 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떡 가든지 선생님이 다 말해줬어요 공고는 니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중략) 운동 하면 수업을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딱 그만두고 나니까 공부시간에 맨날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조퇴를 3학년 때만 30번 이상했어요.

그냥 디자인과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1지망 2지망이

있잖아요, 전자라를 써야하는데 디자인라를 썼어요. 전자라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자라를 1지망에 쓰려했는데, 정원이 초과됐다고 그래서 2지망에 쓰고, 디자인라는 아직 초과안터서 1지망에 썼어요. 결국 디자인라가 됐지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갈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ㄹ공고라는 거예요...(중략) 학교도 가보지 않고 정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산 꼭대기에 있어서 버스도 안다니고, 마을에 안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S고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양아치 학교 같아서요, 막 논다는 애들하고 깡패같은 애들이 많아요. 맨 처음 교실에 갔는데도 다 행해서 16명인가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우리반은 9명 밖에 없는거예요, 짝인 애들도 2~3명 생기고 만나오는 애들도 있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왔도 숫자가 적어서 수업을 안하고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대부분 다 자요.

▶ B군

태권도부가 있는 인문계쪽으로 가볼려고 알아보다가 성남의 ㄹ고등학교를 찾았어요. 그때 저희 다닐 때까지만해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걸 놓치는 바깥에 막 흐지부지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 그래 지금 뭐 거의 인문계도 마감됐으니 공고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그냥 앉았다고 했는데 합격하고 보니 야간인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K공고를 뜬 그땀두게된 이유가 이전에 ㄹ공고 야간을 다녔는데, 4개월밖에 안다녔는데도 다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려웠어요. 너무 아무런 준비없

이 무리하게 복학을 해가지고 생활이 계속 되니까, 밖에는
놓고 아침에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가게 되었어요.

▶ C군

디자인과 선택은 친구들 결정에 따랐어요.
내가 이것 계속 해가지고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
었어요.

▶ D군

원래 D공고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모자라서 선
생님이 A공고를 넣어 보내서 마감될 시간에 가서 접수했고,
겨우 되었거든요. (중략) 처음엔 좋아했죠, 이제 나도 고등
학생이라고, 그런데 막상 다니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처
음엔 40명이 넘게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전차 막 한두명씩
빠지고 자퇴내고 그러더니 반이상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실업계고등학교의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졸업후에
도 친한 친구들끼리 헤어지지 않으려고, 학교와 전공까지도 하
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중퇴청소년들의 과거 진로의식의 수준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학 후
에 전공에 대한 흥미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며, 오히려 일탈적 또
래집단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진다.

중학생 시기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적성검사, 정보수집, 상
담 등과 같은 진로탐색의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지원서를 작성해야하는 시점에서 상황적 요인
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실패의 커다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학교운영 상황도 학교부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정책제언

V.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에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에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학교중퇴의 경로모텔(path model)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러한 경로모텔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로모텔의 구성을 위해 먼저 기존의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로부터의 낮은 교육적 지원과 관심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으며, 재학시절 어느 정도의 비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중학생 시기부터 학교안보다는 학교밖에 훨씬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미성숙한 진로의식과 진로실패가 실업계 고등학교생의 학교중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경로모텔의 구성을 위해 두 번째로 청소년일탈의 이론인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검토하여 학교중퇴에 적용시켜보았다. 그 결과 사회통제론에서는 애착의 약화, 전념의 약화, 관여의 약화를,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관련있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업계 중퇴청소년의 학교중퇴 경로모텔(path model)을 탐색적으로 구성하였다. 경로모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시기의 ‘관습적 유대의 약화’ 단계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빈곤, 교육적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고, 학교성적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줄며, 학교공부의 시

간이 줄어들고 지각이나 결석이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중학교 시기의 ‘비행친구 교체와 비행’의 단계에서는 가족과 학교의 관습적 목표보다는 또래집단과 학교의 비관습적 영역속에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으려하며, 그것이 일탈적일 지라도 또래집단이 갖고 있는 의리의 문화로 인해 거부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결국 잘못된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습관화된 일탈적 행동과 진로실패에 따른 전공과목의 흥미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입학 초기에 대다수 학교중퇴를 하게 된다.

실업계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 경로모델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는데, 몇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진로의식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관습적인 경로를 통한 진로의식의 발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비관습적인 경로를 통해서 진로의식을 발달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진로의식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구분과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진로의식의 발달은 사실상 초등학교생시기부터 시작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중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학생 시기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지도가 집중적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원인의 상당부분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잘못된 진로선

택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퇴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와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퇴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가장 많으며, 그 중퇴의 원인이 되는 관습적 사회와의 단절,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학생 시기에 대부분 시작·진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교사회사업적인 개입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효과도 중학교 단계에서의 개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입학·편입학시 복교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 면접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단 한 번 중퇴를 하고 나서 다시 복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교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교의 마음만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학교에 복교했을 경우에 이전보다 훨씬 더 학교적응이 어려워 다시 중퇴한다는 사실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표본의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으며, 모두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자청소년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2001), ‘학업중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학업
중도탈락과 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구자경·홍지영·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
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
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김동춘(2001),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삼인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
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부태(1997),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성식 외(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프로그램개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 김준호 외(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청소
년개발원
- 서우석 외(2001),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
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
회발전연구소
- 송광성 외(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
년연구원
- 유성경 외(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
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 교육개발원
- 이경림(2000),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영 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학업중도탈락과 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대책’, “진로교육학회 제 7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지인(1997),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조영승 외(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도
- 조한혜정(2000),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 최인용 외(1996), “부산지역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부산광역시
- 탈학교모임 친구들(1999), “자퇴일기”, 민들레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학교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2권 1호”, 순천향대학교

-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생을 위한 시군구 상담실의 상담지원 체제', "중도탈락학생 예방체제 개발을 위한 콜로키움 자료 집", pp. 39-60. 청소년대화의 광장
- Ekstrom, R. B., Goertz, M. E., Follack, J. M., &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 Allen E. Liska(1988), 장상희 외 역,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